

# 불교종립대학 교양교과를 통한 대학생 포교 방안 연구

-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강좌를 중심으로 -

이석환\* · 김은영\*\*

- I. 서언
- II. 종교계 설립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
  - 1. 비불교계
  - 2. 불교계
  - 3. 불교종립학교 교양필수교과의 특징
- III.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 1. 불교와 인간 강의의 현황
  - 2. 불교와 인간 강좌의 개선방안
  - 3. 대학생 포교방법으로서의 교양교육
- IV. 결어

## ■ 한글요약

본 연구는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찰에서 진행 되는 전통적인 포교방식과 차별화된 종립대학의 교양강의를 통해 대학생 포교의 실현가능성과 확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강의인 <불교와 인간>을 통해 대학생 포교의 활성화를

\*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동국대학교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위한 교육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종교계 종립대학에서는 대부분 필수 교양과목으로 각 종교의 역사와 철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불교계 4년제 종립대학들도 졸업필수 요건으로 불교 관련 이론과 수행 강의를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소규모 대학은 운영상의 문제로 교양 선택 과목의 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 동국대학교는 보편적 종교성과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불교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은 『불교입문』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통일안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의 획일화, 교수자간 의견조율의 미비, 강의교안의 부실, 주교재의 내용부실과 저작권 시비 등의 문제를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의 편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강좌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웃종교인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의 당위성 확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불교윤리의 확립, 강의자를 위한 재교육과 강의경험 공유, 강의교재와 교안의 개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교전략으로서 강의 성격과 목표 구체화, 수강인원 축소, 학교와 종단의 관심, 불교 관련 교양과목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불교와 인간> 강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학생과 강사의 강의만족도조사, 강의개선방안 협의, 강의표준화에 따른 의견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교양필수 과목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를 위한 시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학생 포교, 교양교육, 종교교육,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 I. 서언

다종교사회인 한국의 종교적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특정 종교가 없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한국은 종교다원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또한 한국은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 등 세 종교가 강세를 보이고, 기타 종교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sup>2)</sup> 현대 한국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sup>3)</sup> 각 종교들이 신도 확보를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sup>4)</sup> 동시에 탈종교화 현상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은 21세기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는 지난 40년간 감소해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불교 인구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sup>5)</sup> 특히 2005년과 비교하여 2015년 불교 인구는 영·유아층, 아동층, 청소년층, 청년층, 중년층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증가하였다. 장년층과 노령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불교의 특징이다.<sup>6)</sup> 하지만 아동층, 청소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감소가 장년층과 노년층의 증가보다 크다. 결국, 중년층 이하 불교인구 감소가 전체 불교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과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동층, 청소년층, 청년층에게 불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불교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찰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포교방식을 넘어 중

1) Don Baker(2016), 8-10.

2) 류성민(2009), 26.

3) 정창수, 김신열(1993), 126-128 ; 은기수 외(2002), 557-586.

4) Don Baker(2016)

5)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6) 최현중(2011), 23.

립대학의 교양 강의를 통한 대학생 포교의 그 실현가능성과 확장성을 이 연구를 통해 타진해보고자 한다. 다행히 대학 교양교육과 불교에 대한 이미 있는 선행 연구가 몇몇 진행된 바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과 종교라는 큰 주제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와<sup>7)</sup> 불교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sup>8)</sup> 그것이다. 또한 주요 종립대학 및 국립대학을 망라하여 대학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연구들도 발표되어 있으며,<sup>9)</sup> 특정 종립대학의 교육과정 내 종교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sup>10)</sup>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전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 종립대학 개설강의의 종교교육과 불교교육의 현황 파악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종교 관련 교양강의의 보편적 스펙트럼 안에서 불교 종립대학의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을 일반교양과 필수이수교양, 특히 동국대학교에 개설된 <불교와 인간> 강의를 통해 모색해 볼 것이다.

## II. 종교계 설립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대학교는 총 190개교로 그 중 156개교가 사립학교이다.<sup>11)</sup> 그 중 종교계 설립은 86개교로<sup>12)</sup>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 있어 종립학교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

7) 박선영(2001), 51-71.

8) 조기룡(2018), 317-339.

9) 나권수·윤재근(2019), 119~142; 유성욱(2020), 151~161.

10) 김귀성(2001), pp.201~227 ; 김은영(2020), 135-149.

11) 대학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30/intro.do>)

12) 고병철 외(2018), 194.

연구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중 필수교양에 종교 관련 교과가 편제되어 있는 것은 종교계 설립대학뿐이고, 국공립대학이나 일반 사립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sup>13)</sup> 다양한 종교계 설립대학의 종교 필수교양 강좌의 현황을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 1. 비불교계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일반대학의 형태로 설립된 종교계 사립학교 중 불교계를 제외하면, 기독교(개신교 61개교, 천주교 14개교), 원불교(2개교), 그 밖의 종교들(4개교)의 설립한 대학들이 있다.<sup>14)</sup> 각 종교별 대학들 중 일부 대학을 예로 삼아 살펴본 종교 교양필수

13) 유성욱(2020), 153.

14) 개신교: KC대학교(서울,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감리교신학대학교(서울, 기감), 강남대학교(경기, 초교파), 경성대학교(부산, 초교파), 계명대학교(대구, 초교파), 고신대학교(부산, 예장 고신), 광신대학교(광주, 예장 합동계), 국제예술대학교(서울, 초교파), 김천대학교(경북, 초교파), 나사렛대학교(충남, 나사렛 성결회), 남부대학교(광주, 초교파), 남서울대학교(충남, 기감), 대구대학교(경북 경산, 초교파), 대신대학교(경북, 예장 합동), 대전신학대학교(대전, 예장 통합), 동서대학교(부산,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루터대학교(경기, 기독교한국루터회), 명지대학교(서울, 초교파), 명지대학교(용인, 초교파), 목원대학교(대전, 기감), 배재대학교(대전, 기감), 백석대학교(충남, 예장 백석대신), 백석예술대학교(서울, 예장 백석대신), 부산외국어대학교(금정구, 초교파), 부산장신대학교(경남, 예장 통합), 삼육대학교(서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서울기독교대학교(서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계), 서울신학대학교(경기, 기성), 서울여자대학교(서울, 초교파, 장로회계), 서울장신대학교(경기, 예장 통합), 서울한영대학교(서울, 예장 한영), 성결대학교(경기, 예성), 성공회대학교(서울, 대한성공회), 숭실대학교(서울, 초교파), 신한대학교(경기1, 초교파), 신한대학교(경기2, 초교파),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경기, 초교파), 안양대학교(경기, 예장 대신계), 안양대학교(인천, 예장 대신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강원, 초교파), 연세대학교(서울, 초교파), 영남신학대학교(경북, 예장 통합), 예수대학교(전북, 초교파), 이화여자대학교(서울, 초교파), 장로회신학대학교(서울, 예장 통합), 전주대학교(전북, 초교파), 중부대학교(충남, 초교파), 창신대학교(초교파, 장로회계), 총신대학교(서울, 예장 합동), 침례신학대학교(대전, 기독교한국침례회), 칼빈대학교(경기, 예장합동계),

교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사례

연세대학교는 특정한 종파 없이 초교파적 연합정신을 가진 개신교 계열 종합대학이다. 필수교양에 해당하는 교양기초와 기초교육 영역 중 전공생이 공통을 이수해야하는 기독교 관련 교양 교과는 <채플>(0.5학점×4개 학기 수강), <기독교의 이해>(3학점), <기독교와 세계문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중 택일) 등이 있다.<sup>15)</sup> 1986년 제 1학년 입학생부터 채플을 교양필수과목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며,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화 전환을 시행하였다. 채플은 일반적으로 초빙된 교내외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독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채플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sup>16)</sup>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는 <기독교의 이해> 과목에 대해 채플과 더불어 연세설립정신을 함

---

평택대학교(경기, 초교파), 한국성서대학교(서울, 초교파), 한남대학교(대전, 초교파, 장로회계), 한동대학교(경북, 포항), 한세대학교(경기,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한신대학교(경기, 기장), 한일장신대학교(전북, 예장 통합), 협성대학교(경기, 기갑), 호남신학대학교(광주, 예장 통합), 호서대학교(충남, 초교파) ※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미국 LA, 감리회).

천주교: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 가톨릭대학교(종로구, 제3캠퍼스, 성신교정), 가톨릭대학교(부천시, 본교, 성심교정), 가톨릭대학교(서초구, 제2캠퍼스, 성의교정), 광주가톨릭대학교(전남), 꽃동네대학교(충북, 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시), 대전가톨릭대학교(전의면), 목포가톨릭대학교(석현동), 부산가톨릭대학교(부곡동), 서강대학교(서울), 수원가톨릭대학교(화성시),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군, 본교), 인천가톨릭대학교(연수구, 제2캠퍼스).

원불교: 원광대학교(전북 익산시), 영산신학대학교(전남 영광군).

그 밖의 종교들: 유교(2)-성균관대학교(서울), 성균관대학교(수원, 자연과학캠퍼스), 대순진리회(1)-대진대학교(포천시), 통일교(1): 선문대학교(충남 아산시) 등. 고병철 외(2018), 196-197에서 발췌.

15) 연세대학교(2021), 119, 255.

16) 연세대학교(2021), 16.

양하는 두 기둥으로, 선교정책 과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sup>17)</sup> 즉,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관련 교양기초는 신앙인을 양성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기초교양필수 영역에 <인간학1>(2학점), <인간학2>(2학점),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2학점), <사랑나누기>(2학점) 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단과대 또는 학과별로 학년별 이수체계를 제시해두고 있다.<sup>18)</sup>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교과명만으로는 특정 종교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교수자의 대부분이 가톨릭 성직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교교양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은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인식의 통합에 대한 모색, 신앙과 이성 간의 대화, 도덕적 관심이라는 단계로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는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교육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sup>19)</sup>

## 2) 유교 및 신종교 사례

성균관대학교는 필수교양으로 2013년부터 <성균논어>(2학점)를 운영하고 있다. 성균인성교육센터에 담당하는 이 교과는 유학의 고전인 『논어』를 기반으로 현실의 문제를 탐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 4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고, 학생들은 옛 성균관을 탐방하는 현장학습도 떠난다. 유교의 인의예지를 교시로 하고 수기치인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성균관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지점으로 학기당 30여개 강좌가 개설된다.<sup>20)</sup>

17) 연세대학교(2021), 258.

18) [https://haksa.catholic.ac.kr/haksa/course0202\\_19.html](https://haksa.catholic.ac.kr/haksa/course0202_19.html)(검색일 2021.11.26.)

19) 임민균(2020), 33-38.

20) <https://chec.skku.edu/chec/course/noneo.do>(검색일 2021.11.26.)

원광대학교는 “교립학교의 장은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당 2시간 이상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원불교 교육규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교양필수 과목으로는 <종교와 원불교>(3학점)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련과 봉사영역에서 <신과 인격수련>(2학점) 등의 과목을 교양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다.<sup>21)</sup> 졸업필수 수강 교과인 <종교와 원불교>는 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80~120명을 기준으로 학과(부)별로 편성하여 개설한다.

대진대학교는 교양필수로 <대순사상의 이해>(2학점)를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sup>22)</sup> 이 외에도 종교 관련 교양을 선택영역에 개설하고 있다.

## 2. 불교계

### 1) 개설과 운영

불교계에서 설립한 4년제 종합대학교로는 동국대, 중앙승가대학교, 위덕대, 금강대 등이 있다.<sup>23)</sup> 전체 종교계 사립대에서 약 3.4% 정도의 비율로, 이웃 종교에 비하여 그 물리적인 숫자는 작으나 고등교육 분야에서 불교를 대표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교육기관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불교계 설립 종합 대학교들 가운데 본장에서는 출가 수행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승가대를 제외하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일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동국대(서울/경주), 위덕대, 금강대의 학부 교양교육에 있어 종교(불교) 교육의 현황과 그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

21) 원광대학교(2021), 42.

22) 대진대학교(2020), 109.

23) 김은영(2020), 136.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대학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불교 종립대학개별의 설립 주체 종단이나 역사와 같은 정성적인 부분은 대학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단과대학이나 재학생 규모 등의 양적인 차이도 인지하는 것이 이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1> 불교종립대학 일반 현황 비교표

구분		설립종단	개교 시기	학부 현황	재학생 (2020년 기준)
동 국 대	서울캠퍼스	대한불교조계종	1906년	13개 단과대학 1칼리지	13,944명
	경주캠퍼스		(1978년)	8개 단과대학 1칼리지	7,670명
위덕대(경주 소재)		대한불교진각종	1996년	5계열 22학부(과)	2,999명
금강대(논산 소재)		대한불교천태종	2002년	2학부 1칼리지	393명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교종립대학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동국대학교이다. 현재 학부 기준 단과대 규모나 재학생 인원도 가장 많다.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접할 기회를 가지고 재학을 한 학생들의 수가 다른 종단 설립의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만큼 불교 포교의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 2) 교양교육의 방향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큰 규모로 운영 중인 동국대학교의 경우, 최초의 전신이었던 명진학교(明進學校)는 승려 중심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1930년 혜화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불교과 외에 흥아과(興亞科)를 신설하고, 광복 이후 1946년에 동국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전문부 외에 문학부(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를 설치하면서,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양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대학이기도 하다. 특히 이 시기의 재학생이었던 조지훈과 같은 문인들의 예술 세계에 담긴 불교의 정취는 청년기 종교교육과 불교 포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알려 준다.

현재 동국대에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단과대학인 다르마칼리지(서울)과 파라미타칼리지(경주)가 캠퍼스별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교과를 제외한 종교(불교)와 관련된 교양교과 현황은 아래 <표2>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공통교양(필수)와 일반교양 영역 모두에 불교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과 관련된 필수 이수 학점은 최소 4학점이며, 개별 학생의 선택에 따라 7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일반교양 영역은 인문, 사회, 문화예술체육, 융복합 등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다시 한 번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 별로 다채로운 주체의 불교 관련 교과가 분포되어 있는데, 종교학 일반에 대한 주제 보다는 불교 관련 교과의 비중이 높다.

<표2> 동국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영역	교과명(시수)	비고
공통 교양 (필수)	자아성찰	· 자아와명상1(1) · 자아와명상2(1) · 불교와인간(2)	P/F P/F
	고전과창의융합	·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3)	세미나 5개 강좌 중 선택 가능
일반 교양	인문영역	· 만해와불교의 민족운동(3) · 만해와근대지성(3) · 근현대고승열전(3) · 만해의생애와사상(3) · 오리엔탈리즘과불교(3)	

		· 사찰을통해본한국의역사와문화(3) · 불교와스토리텔링(3) · 인도불교이야기(3) · 그리스문학과신화이야기(3) · 현대요가와자기이해(3)	
	사회영역	· 종교와법(3) · 동남아시아와불교문화(3)	
	문화예술체육	· 요가&필라테스(3) · 일본, 문학, 그리고불교(3)	
	융복합	· 붓다와인공지능(3) · 4차산업혁명시대, 삶의변화와휴머니티(3) · 레트로동아시아의건축공간과 신화(3) · 종교와과학 (3)	

대한불교진각종에서 1996년에 설립한 위덕대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기관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양 관련 별도의 세칙 없이, <학칙> 제8장 제27조(교과목)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불교 관련 교양선택 교과과는 개설된 바 없다. 교양필수인 3개 강의는 매 학기마다 개설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명칭이 드러난 교과목도 있지만, 마음공부나 마음수련과 같이 불교의 수행을 사회 일반의 가치와 연결시킨 교과목도 있다.

<표3> 위덕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2021년 기준)

구분	교과명(시수)	비고
교양필수	· 마음공부(1) · 마음수련(1) · 불교와사회(2)	1학기 및 2학기 모두 개설
교양선택	해당 없음	

대한불교천태종에서 2002년에 개교한 금강대는 로터스칼리지라는 교양을 전담하는 독립된 교양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별도로 독립된 교양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나 <학칙> 제33조(교육과정 편성·이수)에 따라 교양과정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수강편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설된 불교 관련 교과는 모두 3개 강의였다. 특히 1학기는 교양필수 외 교양선택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으며, 편람에 편제되어 교과목 개요는 있으나 실제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설되지 않은 교과가 4개 강의가 있었다. 재학생 규모가 적은 학교 특성상 교양필수는 매학기 개설되지만, 교양선택은 여러 개의 과목이 학기마다 교차 개설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4> 금강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2021년 기준)

구분	교과명(시수)	비고(미개설 교과)
교양필수	· 1학기: 삶과 불교(2) · 2학기: 생활 속의 수행(2)	
교양선택	· 2학기: 불교문화유적 여행(1)	· 전통호흡의 이론과 실제 · 인간과 종교 · 불교와 문화교류 · 동양의 가치와 철학

### 3. 불교종립대학 교양필수교과의 특징

다음으로 3개 종립대학의 불교 관련 교양필수 교과들의 개요(교과목 해설)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공개되지 않은 1개 대학의 개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타 불교종립대학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동국대의 교과들이 종파를 넘어 좀 더 보편적 종교성과 지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sup>24)</sup> 지향하

24) 미국의 진보적 교육운동의 대표자인 존 듀이(John Dewey)의 『공동신앙(A Common Faith)』에 따르면 ‘종교(religion)’와 ‘종교적인(religious)’ 것은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불교 종립대학 불교 관련 교양필수 교과 개요

구분	교과명	개요(교과목 해설)
동 국 대	자아와명상1 자아와명상2	자아의 이해와 명상을 통해 진실하고 창조적인 자신의 인간상 확립에 강좌의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자세와 호흡법 등 기초적 명상법을 습득하고 체험한다.
	불교와인간	붓대(석존)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인생관·가치관을 갖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갖춰 실행하는 인간 인격 완성과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 세계 건설에 헌신 노력하도록 가르친다.
	지혜와자비 명작세미나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이전에 관계로 살아간다. 존재가 있어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 존재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혜’의 삶과 오늘 성취가 있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인연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자비’의 삶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강좌는 첫째,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탐구하고 모색한다. 둘째,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탐색하고 통찰한다. 그리하여 연기적 존재와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 덕 대	마음공부	미공개
	마음수련	미공개
	불교와사회	미공개
금 강 대	삶과 불교	이 수업은 불보(佛寶)와 법보(法寶) 그리고 승보(僧寶)의 삼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참모습에서 깨달은 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나아가 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실천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가는 법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Dewey 1966, 87) 박선영은 존 듀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종교교육의 유형은 대체로 특정한 종파의 교육을 뜻하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 여러 특정 종교들을 포함하여 종교 일반의 본질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특정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신념체계가 아니라 원숙한 인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종교성 즉 궁극적 가치지향성을 교육하는 ‘종교적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us)’이 그것이다. 박선영(2006), 266~267.

	<p>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통찰하고 또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에 대해 학습한다.</p>
<p>생활 속의 수행</p>	<p>이 수업은 불교의 수행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염불수행이다. 이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배운다. 또한 경전을 독송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과 『천수경』 그리고 『법화경』의 제25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을 독송하는 법을 배운다. 이와 더불어 천태지관 가운데 5회의 수행에 대해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돌아보고 발전시키게 한다.</p>

즉,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불교 관련 교과야 말로 이웃종교인이거나 무종교인인 학생들에게 세계 보편 종교로서의 불교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 포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학부제 실시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이전의 <불교학개론> 등의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자아와 명상 I>, <자아와 명상 II>, 그리고 <불교와 인간>은 교양교육기관의 유무, 제도의 개선, 교과개선과 상관없이 교양필수과목으로 20여 년 동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운영되었다.<sup>25)</sup> 그동안 공통교양 영역의 불교 관련 교과목이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 정규 강의를 통한 포교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이다. <자아와 명상>은 매학기 50~70개(수업당 정원 60명 내외), <불교와 인간>은 30개 내외(수업당 정원 60명 내외)의 강의가 개설된다. 이 수업들의 주요대상은 저학년인 1학년인데, 불교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종교교양이자 불교교육이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일종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자아와 명상> 교과는 교강사들로 구성된 교재편찬위원회가 구

25) 김은영(2020), 137.

성되어 강의 방법, 준비물, 성적 평가, 과제물 등에 대한 공통 개요를 정리하고, 15주의 학사 일정에 맞춘 주차별 강의내용을 확정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교재를 개발하여 2019년부터 도입하였다.<sup>26)</sup>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도 공통교양 교재개발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교와 인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2021년 발간하였다.<sup>27)</sup>

앞서 살펴본 불교 종립대학의 불교(종교) 관련 교양교과의 현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종교계 설립 대학들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설립 이념이 되는 종교(종파) 관련 이론과 수행 강의를 교양필수 영역에 편제하여 개설하고 있다. 불교계 종립학의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종교 관련 교과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최소 2~3과목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그 중 동국대는 명작세미나 영역에도 불교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 선택에 따라 최대 7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둘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운영상의 제반 문제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교양선택 과목의 수와 다양성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불교 교양필수 교과를 위한 교재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시도도 교육의 역사와 경험이 가장 오래 축적된 동국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Ⅲ.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앞서 불교계 종립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불교교육과 관련되어 강의가 개설된 교과목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각 대학의 설립

26)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교재편찬위원회는 『자아와 명상 1 워크북』(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9) 및 『자아와 명상 2 워크북』(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9)을 편찬하였다.

27) 동국대학교 불교대학(2021), 『불교입문』(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이 교재 출간 이전에는 1986년 초판이 발행된 『불교학개론』(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와 1988년에 발행된 『불교와 인간』(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등이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교양과정에 적용한 사례로서 대부분의 종교계 종립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28)</sup>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불교계 종립대학의 교양과정에서 불교 관련 교양수업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불교교육과 포교방법으로서 교양강의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위한 포교방법으로서의 교양교육과정의 현황과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불교와 인간 강의의 현황

### 1) 강사 선발과 전문성

교양교육은 대학생이 처음 접하는 고등교육으로서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교양교육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종교 관련 교과목, 특히 불교 관련 교양교과목을 대학생 포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절에서는 대학생의 포교방법으로 불교 관련 교양교육을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교과목인 <불교와 인간> 과목을 중심으로 현황을 논의하고 발전방안 및 포교방법론으로서 교양과목의 활용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계 종립 고등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은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두 과목이다. <자아와 명상>은 1학점 2과목으로 구성되어 2학기에 걸쳐 수강해야 하지만, <불교와 인간>은 1회 수강으로 졸업요건이 완료된다. 두 과목 모두 매학기 설강

---

28) 2021년 10월 29일 현재 종교계에서 설립된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의 교양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교육목적과 교양교과목은 각 대학 홈페이지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교과과정 또는 대학요람의 교과과정 부분 참조)



되지만, 졸업을 위한 필수교양으로서 두 과목의 차이점은 성적평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아와 명상>은 절대평가로서 평점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 Pass / Fail로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불교와 인간>은 학점에 따른 편차가 있는 절대평가<sup>29)</sup>이다. 이로 인해 교양필수 과목 수강생들의 강의만족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강좌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아와 명상> 과목은 40명 정원의 강좌가 학기당 평균 50~70개 개설되는 것에 비하여 <불교와 인간>은 60명 정원의 30개 내외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불교와 인간> 과목은 2021년 2학기 현재 31개의 강좌가 설강<sup>30)</sup>되어 있으며, 강의는 전임교원과 강사가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불교와 인간> 과목의 강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불교와 인간> 교과목 현황<sup>31)</sup>

	구분	교과목수	기타
강의 담당자	전임교원	2	1명이 2과목 담당
	강사	27	1명이 2과목 담당
담당자의 전공	불교학	26	2명이 2과목 담당
	인도철학	2	
	행정학	1	

<표 6>을 살펴보면 <불교와 인간> 과목의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률은 6.5%, 강사는 93.5%이다. 이는 현재 전임교원의 담당 강의시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도 있지만, 신진연구자에게 강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

29) 기존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서 학점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후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따라서 평가방법은 과거의 상대평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0) 매학기 30개 내외의 강좌가 설강되며, 일반적으로 31~32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31) 2021년 2학기 개설된 교과목 기준임.

의 배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의 담당자의 전공<sup>32)</sup>은 불교학 전공자가 90.5%, 인도철학 전공자 6.5%, 행정학 전공자 3%로 불교학전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불교와 인간> 과목의 특성으로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인도철학과 불교교학의 각 전공자들이 폭넓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 강의안 통일의 현황과 문제점

1996년 학부제 실시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이전의 <불교학개론> 등의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자아와 명상 I>, <자아와 명상 II>, 그리고 <불교와 인간>은 교양교육기관의 유무, 제도의 개선, 교과개선과 상관없이 교양필수과목으로 20여 년 동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운영되었다. 그동안 공통교양 영역의 불교 관련 교과목이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 정규 강의를 통한 포교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교양 수업들의 주요대상은 저학년인 1학년인데, 불교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종교교양이자 불교교육이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일종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자아와 명상> 교과는 교강사들로 구성된 교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의 방법, 준비물, 성적 평가, 과제물 등에 대한 공통 개요를 정리하고, 15주의 학사 일정에 맞춘 주차별 강의내용을 확정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교재를 개발하여 2019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공통교안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양필수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된 교과목은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집중도

---

32) 최종학위 기준으로서 행정학 전공자는 학부전공이 인도철학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반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자아와 명상> 과목은 강의를 통일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강의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교와 인간>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에서는 공통교양 교재개발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2021년 『불교입문』이라는 수업교재를 발간하였다.

현재 <불교와 인간> 과목은 강의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2021학년 1학기에 강의통일안 계획을 공지하고 2021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의교재를 바탕으로 표준 강의계획서<sup>33)</sup>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표준 강의계획서를 기반으로 표준강의교안을 제작하여 수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통일 방법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강사 개인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가 개인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일하여 전반적인 강의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강의의 주체인 불교대학과 강의 제공자인 학교의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0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의표준안과 강의교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강의를 획일화하여 강사 개인의 강의 목표와 강의 전략에 맞지 않는다. 둘째, 강의 통일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일부 강사만 참여하여 강의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강사들에게 배포된 강의교안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도안이 사용되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점, 강의교재의 내용이 부실하게 반영되어 있다.<sup>34)</sup>

33) [부록] 참조.

34) 이외에도 학기초에 수강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새로운 강의교재를 주교재로 제공함으로써 교재부족 사태를 일으켜 학생들과 강사에게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이

이러한 <불교와 인간> 강의통일안의 현황을 미루어보면, 강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일부의 의견만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면 강의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강의 통일을 빌미로 획일적인 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sup>35)</sup>

또한 강의교재에도 다수의 문제가 보인다.

먼저 저자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강의의 주교재인 『불교입문』의 저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서적에서는 편저일 경우에 편자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불교입문』은 편저인지, 불교대학이 저술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 저자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교재 내용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내용적인 측면과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는 불법복제와 관련한 저작권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입문』 교재는 참고문헌과 각주가 없다. 이는 저자가 100% 저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저자도 막연한 상태에서 저자가 저술했는지, 편저자가 있다면 편저자가 온전하게 내용을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 특히 『불교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출판된 서적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다수 보이고 있다는 점은 내용의 오류와 더불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공통교양 교재로서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

---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35) 강의를 통일하여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불교와 인간> 강좌의 개선방안

앞서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 강좌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교양과목을 통해 불교라는 종교철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종교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데에는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각 종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 또는 급진적인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양필수 교과목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종교교과목이라는 특성상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의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교양필수 교과목의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타종교인과 학생 개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무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종교 이외에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 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거나 배척의식이 일어날 수 있다.<sup>36)</sup> 물론 강의를 통해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배려와 중립성 유지를 통해 종교의식을 강압적으로 주입하거나 특정 종교만을 강조하는 행위<sup>37)38)</sup>는 지양해야 할 것

36) 수강생들과의 대화와 시험답안을 통해 종교와 불교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에서 받은 교육에 의해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교양과목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37) 2019년 1학기의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강의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학교에서는 강의담당자를 교체하였으나 사범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

이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배려를 기반으로 한 협의를 유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을 배려하는 교수자의 역할로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종교의 교리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보다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불교철학을 통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은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종교적인 측면과 종교사상 교육을 다루게 되는 교양필수 과목은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지닌 학생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상대적인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역사와 문화이다.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으며, 유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지식과 관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종교교육이라는 반발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개개인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에 한국문화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불교가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종교 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불교는 인간중심주의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무한경쟁과

---

었다.(2019년 7월 3일 불교포커스 <동국대 학생들, 세월호 망언교수 규탄 나선다>, 7월 9일 불교포커스 <동국대 교수 세월호 망언사태,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2019년 7월 10일 연합뉴스 <불교도만 살아...세월호 망언으로 교내 갈등> 등의 기사 참조.)

- 38) 이러한 행위를 개별 강사의 문제로 치부하여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지만 공식적인 강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강사의 자질이 아닌 재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불교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변화가능성을 가장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특히 불교의 연기법과 업사상은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주고 개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상적 기반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근거로서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불교와 인간> 강의의 개선방안을 크게 강의자에 대한 부분과 강의교재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강의자에 대한 부분으로서 강사의 재교육과 강의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문제인 강의시간에 특정 종교의 어떠한 부분만을 강조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학교 교육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어 강의에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외부에 이슈가 되면 안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검토하여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경험을 공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강의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강의를 주관하는 학과에서 강사회의를 소집하여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의견만을 개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강의자의 강의윤리에 대한 부분을 재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강자를 배려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불교와 인간> 강의통일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이는 강의의 주체자로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로서의 윤리이자 학자의 양심을 떠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강의교안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강의교안의 저작권 문제, 둘째는 강의교안의 오류와 내용부실의 문제이다.

먼저 강의교안의 저작권 문제를 제시한다. 2021년 2학기를 위해 제공된 강의교안이 1차로 만들어져 공유된 2021년 8월 말에 일반설문을 통해 교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강의교안에서 제공되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의교재에서 사용하는 그림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인터넷 자료를 발췌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에서 인터넷 자료에 대한 자료출처를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교재에서 사용하여 활용한 자료는 뚜렷하게 보이게 하고 인터넷 자료를 숨기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않아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저작권 협의를 통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할 것이다.

강의교안의 오류와 강의교재의 내용에 대한 부실한 반영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강의교재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만든 교안이라고 한다면 강의교재의 역사적 사실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교안을 만들었다면 교안작성자가 부실하게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강의교안은 강사의 강의를 위한 보조 도구로서 강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강사가 확인하고 수정하여 강의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강의통일안이라고 한 후 강의교안을 제공한 것은 이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검증을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은 제공자의 문제와 자료를 만든 주체의 전체적인 문제이다. 특히 만약 자료제작에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자료제작자는 부실하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문제가 있고, 의뢰하여 자료를 입수한 주체는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강의통일안으로서 제공된 강의교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강의교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의교재의 문제는 앞서 저자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편저라면 주편과 저자를 밝혀야 할 것이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저자라면 불교대학 전체가 저자가 되어 저작의 주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강의교재의 개선방안은 각주와 참고문헌을 밝혀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강의의 주교재로 이용되는 『불교입문』은 각주와 참고문헌이 없다. 그렇다면 『불교입문』은 순수창작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불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교재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완전한 순수창작물로 볼 수는 없다. 타인의 저작을 활용하여 제작된 책이다. 내용에서 일부는 다른 서적의 상당한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sup>39)</sup>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자료가 각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저자의 저작물로 이해될 수 있다.

강의를 하는 주체자로서 생각해보자면, 불교를 종교이자 철학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려면 학술적으로 이견이 없는 내용을 학자의 양심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교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교재의 전체적인 학술적 검증이 부족하거나 최신 학

39) 예를 들면, 『불교입문』 79쪽의 내용은 고익진(1994)의 『불교의 체계적 이해』의 131쪽의 내용과 대부분이 유사하다. 이외에도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기존 출간된 자료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술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학자의 양심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만약 타인의 연구를 활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진자료의 사용에도 자료출처를 밝혀 저작권에 문제가 없음을 명기해주어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강의는 학생과 교수자의 상호작용이며, 교육은 인성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의 교재와 강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하여 새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3. 대학생 포교방법으로서의 교양교육

앞서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 강좌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강좌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교 관련 교양필수 과목을 기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교방법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고등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기 전의 일반인을 위한 불교포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양필수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강의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과 종교 관련 교과목이라는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대학생을 위한 포교방법으로서 교양필수 교과목의 개설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의의 성격을 선제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양교육이 중심이 되는지,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교양교육이 중심이 된다면 종교철학의 측면을 수업의 중

심내용으로 다루어야 하고, 포교를 위한다면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포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먼저 학생들의 학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강의평가 방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포교의 측면이라면 현재 운용되는 <불교와 인간> 과목은 학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2021년 2학기 현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sup>40)</sup> 학생들을 위한 포교의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 또는 Pass / Fail로 변경할 필요성이 보인다.

둘째, 수강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불교와 인간> 강좌는 60명의 수강인원으로 되어 있다. 물론 80명에서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60명의 인원을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60명 정원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교수자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전달의 방식을 통한 수업만 가능하다. 만약 교양교육을 통한 포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학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불자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강의를 진행한다면 40명 이하로 수강인원을 조정하여 수강자와 강의자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교법인과 종단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포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종단의 대학생 포교전략과 포교방법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접근이 시도된 적은 없는 것 같다.<sup>41)</sup> 따라서 미래세대인 대학생 포교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교양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와 종단의 포교정책

40) 2020년 2학기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

41) 2021년 11월 11일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의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포교방법론으로서 교양교육을 접근한 학술대회였다.

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는 건학이념구현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학생 교육에 건학이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통한 포교, 교육을 통한 불교 홍보 및 포교를 위해서는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지원<sup>42)</sup>이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인 포교전략으로서 불교 관련 교양강의를 확대해야 한다.

종립학교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일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종교교육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운용되는 불교 관련 교양교육은 교학과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대사회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불교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대중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sup>43)</sup>

불교는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어떠한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종교이다.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은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불교계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불교라는 종교의 이상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 관련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불교에 호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42) 예를 들면 앞서 제시된 수강인원 조정을 포함하여 강의 수 확대와 강사의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수강시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43) 예를 들어 문화예술로 보는 불교, 시민윤리로서의 불교, 사회이슈와 불교를 접목시키는 토론수업이나 발표수업을 통해 불교가 현대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 IV. 결어

본 논문은 불교 종립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교과목인 <불교와 인간>을 통해 강의의 효율성과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불교계를 비롯한 4년제 종교계 설립대학들의 교양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종립대학에서는 각 종교의 중요사상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불교계 종립대학은 ① 대부분의 종립대학에서 졸업 필수 요건으로 불교 관련 이론과 수행 강의를 교양필수로 개설하였지만, ② 소규모 대학은 운영상의 문제로 교양 선택 과목의 개설이 한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③ 동국대학교 교양 관련 교과목은 보편적 종교성과 지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였다.

제3장에서는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 과목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강좌의 개설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불교와 인간>은 공통교재인 『불교입문』을 중심으로 강의 통일안을 마련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① 강의가 획일화 될 수 있다는 점, ② 강사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③ 제공되는 강의교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교재도 ④ 저자가 불분명한 점, ⑤ 내용이 부실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의의 편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강의교재와 강의를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불교와 인간> 강좌의 개선 방안으로 ① 타종교인과 학생의 배려, ②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의의

당위성 확보, ③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불교윤리 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강의자를 위해서는 ① 강사의 재교육과 강의경험의 공유, ②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의교안의 저작권 문제와 교재의 부실한 적용, 강의교안의 오류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의교재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위한 포교방법으로서 교양교육을 ① 강의의 성격을 선제하여 성적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② 수강인원의 조정, ③ 학교법인과 종단의 관심, ④ 적극적인 포교전략으로서 불교 관련 교양강의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생의 강의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강사의 강의만족도 조사와 강의 개선방안 협의, 강의 표준화 작업에 따른 강사와 학생의 의견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경주캠퍼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불교와 인간>이라는 강좌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양필수 과목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를 위한 시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포교를 위해 대학생이라는 대상자의 교양교육을 통한 포교 전략을 위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가 <불교와 인간> 강의의 대표성을 떨 수 없다는 한계는 지니고 있지만, 교양필수 과목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교육은 자신의 생각을 확립시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립대학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병철 외(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고익진(1994), 『불교의 체계적 이해』, 서울: 새터.
-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1986), 『불교학개론』,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1998), 『불교와 인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2021), 『불교입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교재편찬위원회,(2019), 『자아와 명상 1 워크북』, 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9.
-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교재편찬위원회,(2019), 『자아와 명상 2 워크북』, 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9.
- 박선영(2006), 『불교와 교육』, 서울: 학지사.
- 은기수 외(2002), 『한국의 인구』, 서울: 통계청.
- 최현중(2011), 『한국 종교인구 변동에 관한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 김귀성(2001),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 한국종교교육학회.
- 김은영(2020),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3, 한국종교교육학회.
- 나권수, 윤재근(2019),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60, 한국종교교육학회.
- 류성민(2009),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6, 한국종교학회.
- 박선영(2001),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한국종교교육학회.
- 유성욱(2020),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종교 교과 운영에 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63, 한국종교교육학회.
- 임민균(2020), 『가톨릭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과 과제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상황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2, 한국종교교육학회.

정창수, 김신열(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27, 한국사회학회.

조기룡(2018), 「불교종립대학의 불교기반 인성교육 교과과정 개선 방향」, 『불교학보』 8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금강대학교(2021), <2021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논산: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2021), <2021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논산: 금강대학교.

대진대학교(2020), <대진대학교 요람 2020>, 포천: 대진대학교 홍보협력팀.

동국대학교(2021), <2021학년도 교과과정>, 서울: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2021), <연세대학교 대학요람 2021>, 서울: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2021), <2021 교육과정>, 익산: 원광대학교 교육혁신과.

위덕대학교(2021), <2021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경주: 위덕대학교.

위덕대학교(2021), <2021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경주: 위덕대학교.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https://www.academyinfo.go.kr>)

Baker, Don(2016), The Emergence of a Religious Market in Twentieth-Century Korea,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7-39.

Dewey, John(1966), *Democracy and Education*. NY: The Free Press.

<불교포커스> (2019.07.03.), 동국대학 학생들, 세월호 망언교수 규탄 나선다.

(<http://m.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12>)

<불교포커스> (2019.07.09.), 동국대 교수 세월호 망언사태,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http://m.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34>)

<연합뉴스> (2019.07.10.), ‘불교도만 살아’... 세월호 망언으로 교내 갈등

(<https://m.yna.co.kr/view/MYH20190710002100038?section=video/all>)



■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m propagation plan of  
undergraduates through the liberal education of the Buddhist  
religious university:**

Focused on the <Buddhism and Human> class at Dongguk University

LEE Sukhwan · KIM Eunyong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explore that the feasibility and scalability of Buddhism propagation for undergraduates through liberal education classes at the Buddhist religious university. In particular, through <Buddhism and Human>, a liberal arts class at Dongguk University, the study was focused on educational methods for revitalizing university undergraduates' propaganda.

In most religious universities in Korea,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each religion were taught as compulsory liberal arts subjects. Buddhist universities are also operating Buddhist theory and practice classes as a mandatory requirement for graduation. Especially, Dongguk University has a broad approach to Buddhism through education that cultivates universal religiousness and knowledge.

Dongguk University's compulsory liberal arts subject <Buddhism and Human> has been operated with a lecture unification plan centered on Introduction to Buddhism, but several sup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ectures.

To solve the above problem, the improvement of the subject suggest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consideration for other religions and students, securing the legitimacy of lectures based on history and culture, establishing Buddhist ethics in response to social problems, re-education and sharing of lecture experiences for lecturers, and improvement of lecture materials and teaching plans. As a missionary strategy for college students, the nature and goals of the lectures are specifie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the interest of schools and religious groups, and expanding the liberal arts related to Buddhism.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was conducted centered on <Buddhism and Human> at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and that no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 and instructor's satisfaction, discussions on lecture improvement measures, and lecture standardiza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the beginning for the popularization and propagation of Buddhism through compulsory subjects.

**Keywords** ● Buddhism propagation, libera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Buddhism and human>

▮ 논문투고일 : 2021. 12. 3 ▮ 심사완료일 : 2021. 12. 15 ▮ 게재확정일 : 2021. 12. 20

[부록] 동국대학교 “불교와인간” 표준 강의계획서(2021학년도 기준)

강의계획서(Syllabus)

교과목명 (Course Title)		불교와 인간					
이수구분 (Course Classification)		교양필수			학점 (Credit)		2.0
강의개요 (Course Description)		<p>불교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苦]을 통찰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종교이다.</p> <p>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며,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다룬다.</p>					
강의목표 (Course Objectives)		<p>첫째,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이해한다.</p> <p>둘째, 인도-중국-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 전통이 갖는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한다.</p> <p>셋째,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문학적 안목을 함양한다.</p> <p>넷째, 현대사회와 나의 일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p>					
성적평가 (Grading)	요소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기타	합계
	비율(%)	25	30	30	10	5	100%
	만점	25	30	30	10	5	100점
요소 (Category)		평가방법(Assessment)				강의목표와 연관성 (Relevance to Course Objective)	
출석 (Attendance)							
중간고사 (Midterm Exams)							
기말고사 (Final Exams)							
과제 (Homework)							
기타							

강의구조 (Course Structure)	강의구성구분(Structure)			비율(Percentage)	
	강의(Lecture)			80	
	토론발표(Discussion/Presentation)			20	
교재 및 참고서적 (Textbooks & Reference books)	구분 (Type)	교재명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출판년도 (Published Date)
	주교재	불교입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부교재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필원, 이자랑	서울: 민족사	2016
	부교재	불교	데미언 키온	파주: 교유서가	2020
기타사항 (자유기술)	* 강의는 PPT를 가지고 진행한다.(단, PPT 파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 시 F학점으로 처리한다.				

## 주별 강의 일정(Class Schedule)

주 (Week)	강의내용 (Class Topic & Contents)	수업활동유형 (Class Type)	비고
1	강의소개	강의	
2	[현대적 시각으로 다가가기 - 불교와 종교]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현대 다 종교 사회에서 불교가 갖는 고유한 종교적 가치를 이 해한다.	강의+토론	
3	[불교가 탄생한 신비한 나라 - 인도의 종교와 철학] 인도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을 살펴봄으로써 불교가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창시되었는지를 이해한다.	강의+토론	
4	[붓다의 삶을 들여다보자 - 붓다의 일생] 석가모니의 일생을 살펴보고,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 적인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강의+토론	
5	[나라마다 다른 색을 입다 - 세계의 불교] 불교는 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와 서는 서구로도 전파되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를 만나봄으로써 불교의 세계성을 확인한다.	강의+토론	
6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 연기] 불교는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통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근본 이론인 동 시에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이론인 연기에 대 해 알아본다.	강의+토론	
7	[내 삶의 행복추구권 - 사성제] 고통과 그 해결을 다루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 제(四聖諦)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토론	
8	중간고사	시험	
9	[잠깐 나를 쉬어가는 시간 - 명상] 자아 성찰과 자기 변혁의 기술인 명상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토론	
10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 삼법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 (一切皆苦)(또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은 불교의 근본 적인 가르침이다. 연기의 개념에 입각하여 삼법인을 이해한다.	강의+토론	

11	[나와 타인을 위해 사는 삶 - 보살과 육바라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上求菩提 下化衆生] 결심을 한 존재인 대승 보살의 개념과, 해탈을 위한 대승불교의 여섯 가지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의 개념을 이해한다.	강의+토론	
12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펼치다 - 중국불교] 인도불교를 창조적으로 변용한 중국불교를 살펴본다.	강의+토론	
13	[역사와 전통을 만들다 - 한국불교] 중국불교 수용을 통해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독자적 사유를 발전시킨 한국불교를 살펴본다.	강의+토론	
14	[불교를 생각함] 한 학기 수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 발표, 토론을 병행한다.	강의+토론	
15	기말고사	시험	